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정정안내] 지난 호 3페이지 (표)의 "공공안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완화"를 "기준 개선"으로 정정합니다.

2017 신년사에 담긴 국내외 정책동향

01 국내 신년사 : 중앙정부, 경기도

- 2017년(정유년) 새해를 맞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경기도지사의 신년사와 세계 주요 요국 정상들의 신년사 주요내용을 소개
 - 올해 주요 키워드는 정치개혁과 4차 산업혁명이며,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은 약화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단합과 통합 실현이 시대적 소명"
 - 황 권한대행은 지난 2일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적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발표
 -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발전, 사회 각 부문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7년 대한민국 리빌딩(Rebuilding)의 원년으로"
 - 남 지사는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경기도지사의 신년사에서 '새로운 정치시스템 구축'과 '경제시스템 개선'이 키워드로 나타남

| 새로운 정치시스템 구축 | 경제시스템 개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성격이 강화된 새로운 정치 시스템 구축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결정과 도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정 운영방식 혁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도민들에게 참여의 길을 열고 연합정치를 더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 대기업 주도의 구체제 개선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공유적 시장경제의 성공모델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매진 소통과 협력, 창의 역량을 갖춘 인력 육성 전국 최초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일자리재단) 중심으로 본격적 일자리 창출 |

02 해외 신년사 :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독일

- 한편 해외 정상들의 신년사에는 각국이 처한 국내외 정세와 그에 대한 정책방향이 반영

| 국가명 | 신년사 키워드 |
|-----|--------------------------------|
| 일본 | 1억 총활약 사회* |
| 중국 | 영유권 수호 |
| 미국 | 전진(moving forward) |
| 러시아 | 단결(united), 전진(moving forward) |
| 독일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난민포용정책 |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1억 총활약 사회 실현"
 - 아베 총리는 신년사에서 2017년이 헌법시행 70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조상들의 노고를 통해 경제대국, 세계에 자랑할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었다"고 자평하면서,
 - "2020년, 더 나아가 그 뒤를 응시하면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며 간판 정책으로 내세운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강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영토·해양 주권 수호"
 - 중국은 평화발전을 견지하면서도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어떤 구실을 삼더라도 중국인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강력한 영유권 수호 의지를 밝힘
 -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미국, 일본과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됨
 - 더불어 대내적으로도 2017년이 중국 공산당의 5년 주기 당대회가 열리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4대전면*의 지속 추진을 강조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의 신년사 발표 대신 2016년 마지막 날 주간사를 통해 신년 축하 메시지 및 자신의 재임 기간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음
 - 의료보험 재정안정성 강조, 고등학교 졸업률 상승,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주둔미군 철수, 오사마 빈라덴 제거, 이라크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기후변화 대응 주도, 쿠바와 국교정상화 등 재임기간의 업적을 언급하며 미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적(enemies)을 포함한 모두에 행복한 새해를 기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흔치 않은 신년 메시지를 전달함
 - 트럼프 당선인은 "모두 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면서도 "나의 많은 적 그리고 나와 맞서 싸우고 무참히 깨져 어찌할 줄 모르는 이들을 포함"이라고 덧붙임
 - '적(enemies)', 즉 대선 경선 동안 자신을 반대한 진영을 겨냥한 조롱의 메시지로 해석: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기분 좋은 새해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조롱과 모욕에 대한 애정이 식을 줄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는 기사를 게재***
 - 트럼프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반영한 강력한 발언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대중 무역·환율 전쟁 등으로 국제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며 단결된 국민"****
 - 푸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16년은 힘든 한 해였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단결할 수 있었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고 전함
 - 우크라이나·시리아 사태 등으로 인한 서방과의 대립, 서방의 제재와 자유가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러시아 국민이 단결해 시련을 이겨내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평이 담겨 있음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난민포용정책 굽히지 않을 것"*****
 - 메르켈 총리는 "2016년은 심각한 시련을 겪은 한해였고 그 중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가장 힘들었다"고 심경을 토로
 - 하지만 신년사를 통해 "독일은 테러보다 강하다"며 지난 해 3번에 걸쳐 발생한 테러와 잠재적인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난민포용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
 - 시리아 알레포 사태를 언급하며 "절실하게 피난처를 찾아 독일에 발을 내딛어 우리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옳은 일인지를 알 수 있다"고 전함
 - 이는 독일이 난민 수용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하며 유럽 각국의 국경이 통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

*시진핑 주석이 지난 '12년부터 해마다 하나씩 제시한 정책방향으로 ①개혁심화, ②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 ③소강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④종업치당(엄격한 당 관리)을 뜻함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인용
(www.whitehouse.gov/briefing-room/weekly-address)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발췌 ('In Trump's New Year Note, Love and a Jab at Enemies')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췌 ('Vladimir Putin in New Year Message Admits 2016 Wasn't Easy')

*****독일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인용('The Chancellor's New Year Address')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신년사로 보는 지방정부 정책 이슈

2017년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시정 운영 방향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 이슈를 살펴보고자 함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새해 신년사를 살펴보면 주요 정책이슈로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교육,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복지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로·철도 사업, 복합단지조성 등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SOC 분야)도 함께 강조
 -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향은 전통시장 개선, 관광산업 조성, 기업유치 등 각 시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별 신년사 키워드

| | 일자리 창출 | 복지 | 경제 활성화 | 교육 | 보육 | 도시 안전망 | 생태 환경 | 문화 예술 | 청년 지원 | 여가 체육 | 도시 개발 | 도시 환경 | 기반 시설 | 소통 |
|-----|-----------|----|-----------|----|----|-----------|----------|----------|----------|----------|----------|----------|----------|----|
| 가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리 | | | ● | | | | ● | | | | | | ● | |
| 군 포 | ● | ● | ● | ● | ● | | | ● | | ● | | | ● | |
| 김 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 | | ● | | | | ● | | | ● | | | | ● | |
| 동두천 | | ● | ● | ● | ● | ● | | | | | | ● | ● | |
| 부 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원 | ● | ● | | | | | | | ● | | | | | |
| 시 흥 | ● | | ● | ● | ● | | | | | | | | | ● |
| 안 산 | ● | ● | ● | ● | | | ● | ● | | | | | ● | |
| 안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주 | | | ● | | | | | | | | ● | | ● | ● |
| 양 평 | ● | | ● | | | ● | | | | | | | ● | |
| 여 주 | | ● | | | | | | | | | | | ● | ● |
| 연 천 | ● | ● | ● | ● | | ● | | | ● | | | | ● | |
| 오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 인 | | ● | ● | ● | ● | ● | | ● | | | | | | ● |
| 의 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정부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천 | | ● | ● | | | | | | | | | | | ● |
| 파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 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 천 | | ● | ● | | | | | | | | ● | ● | ● | ● |
| 화 성 | ● | ● | | ● | | | | | ● | ● | | | ● | |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시·군은 제외

- 거의 모든 시군이 신년사를 통해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대상은 기존 노년층에서 여성, 청년층으로 확대되는 경향
 - 가평·광명·광주·군포·김포·동두천·성남·시흥·안양·용인·의왕·평택 등 12개 시군은 양육부담 경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의지를 강조
 -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연천·평택·화성 등 8개 시군에서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지원정책을 확대를 강조
- 한편 작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기초단체에서도 재난·재해에 대한 관심 확대
 - 과천(재난안전 종합대책마련), 광주(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연천(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의왕(현장밀착형 재난 안전체계 구축)에서 구체적인 재난재해 대응시스템을 제시

03 FACT CHECK

시무식은 언제 시작되었나?

- 시무식은 '기업 혹은 관공서에서 해가 바뀌어 새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거행하는 일종의 행사로, 일각에서 "시무식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비판 존재
 - 이러한 비판은 시무식(始務式)이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데다*, 기존의 시무식이 관례적·형식적으로 유지되면서 발생
- 그러나 용어의 채택과 별개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풍속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시대부터 기록 존재
 - 시무식은 보통 신년하례와 겸하여 진행되는 대표적 세시풍속으로, 신라시대(7세기)부터 '정조하례(正朝賀禮)'라는 형식으로 존재
 - 기록**에 의하면 정조하례는 "대신이 모든 관원을 거느리고 ... 신년을 하례하는 전문과 표리를 바치고, ... 8도의 관찰사병사수사와 주부군현의 호장리도 참례"하는 대규모 신년행사
- 다만 시무식의 시점이 양력체계를 따르게 된 데에는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요인이 작용
 - 정월 초하룻날 행해졌던 정조하례와 달리 현대의 시무식은 양력설(신정) 다음날 진행되며,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강요한 양력체계 도입의 결과임***
- 전통에 대한 무조건적 답습이나 탈피가 위험한 것처럼 시무식이라는 풍속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취사선택이 필요한 시점
 - 민관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무식이 최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사례 확대
 - 시무식이 형식적 차원의 답습을 벗어나 새해 목표를 공유하고 조직구성원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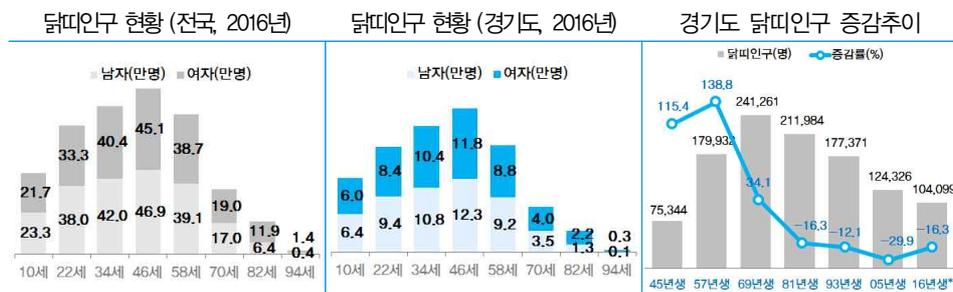
*1910년 1월 5일자 황성신문에서 시무식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

**1849년 「동국세시기」

***양력체계(태양력)는 단발령의 시행과 함께 일본의 압력으로 도입

04 통계로 보는 복지

닭(酉)띠 인구통계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이트

- 2017년은 육십갑자 중 34번째 해에 해당하는 정유년으로, '붉은(丁) 닭(酉)의 해라 불림
 - 우리나라 닭띠인구는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를 비롯하여, 2005년·1993년·1981년·1969년·1957년·1945년·1933년·1921년·1909년생 등이 해당
- '16년 기준 전국 닭띠인구**는 1969년생(만46세)이 약 92만 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2005년생(만10세)은 약 45만 명으로 1969년생 인구규모의 절반미만 수준(47.9%)에 불과
 - 경기도 닭띠인구도 전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나, 만10세에서 만46세까지 젊은 연령층 인구 비중이 전국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닭띠인구는 1969년생(24.1만 명)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05년생이 10.4만 명에 불과

*17년생 닭띠인구 (미정)를 '16년생 출생아 수로 대체하여 계산

**행정부 인구통계가 만 나이로 생성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계산('16년 말 기준). 100세 이상의 닭띠인구는 계산 시 제외